

현대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Eroticism)의 연구

이경화* · 한명숙

상명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I. 서론

원시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성에 대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어 이러한 성적 본능은 인간의 여러 예술활동에 승화된 에로티시즘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간의 심층에 깔려 있는 원천적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libido)가 인간인 유기체를 행동하게 한다고 주장한 프로이트(Freud)에 이어서 그의 이론을 뒷받침한 프뤼겔(Flugel)은 무의식 세계의 성적 매력을 과시하는 것이 복식 착용의 동기라고 주장하여 복식 심리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성적 특성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시대에 따라 여성복식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었고 성적 표현이 변화하고 성의 개방에 따라 에로티시즘의 개념이 변화함으로써 패션의 방향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어 왔다.

'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관능적인 스타일의 유행은 더욱 확산되었고 극대화된 노출의 경향은 성적 부위로 은폐되어 왔던 가슴으로까지 확대됨을 보여주었다. 이에 섹시함과 우아함을 드러내는 글래머스타일은 할리우드의 섹스 심벌인 마릴린 먼로를 연상케 하며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 잘록한 허리는 몸매를 완전히 드러내는 스타일과 함께 섹시함을 느끼게 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은 고대 이집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성을 주제로 택하여 복식에 무의식적 욕망을 표현해 왔으며, 의복의 착용동기가 단순히 기능적이라는 개념이 바뀌면서, 인간은 자기표현으로서 성적매력을 강조하기 위해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장식하는 등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해 에로티시즘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식착용심리가 성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인지하고 인간의 복식에서 에로티시즘이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에로티시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에로티시즘의 뜻을 재조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현대패션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이 하나의 예술로, 여성미를 표현하는 복식의 아름다움의 미학으로 평가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패션의 다양화, 국제화, 고급화, 정보화로 다양한 패션을 볼 수 있는 1990년대의 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표현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1년에서 1997년까지 발간된 패션전문지 Collections, Mode et Mode, SFAA Collection 등에 나타난 현대복식의 에로티시즘의 표현경향을 분석·연구하였다.

II.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현대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표현양식을 직접적 표현양식, 간접적 표현양식, 상징적 표현양식 등으로 나누어 그 경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직접적 표현양식

분석결과에 의하면 직접적인 표현양식은 노출로서 신체를 직접 외부로 드러내는 것과 밀착을 통해 인체의 선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는 인체의 성의 상징이 되는 부분을 대담한 노출로서 표현하여 에로티시즘을 자극하는데 두고 있으며 후자는 아름다운 신체의 곡선에 복식을 밀착시켜 인체의 굴곡을 반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누드에서보다 에로틱함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복식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노출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 선정성을 수용하는데 대담하게 노출하거나, 몸을 부분적으로 장식하거나 은폐시켜 틈새로 ‘보고자 하는 욕구’를 유발시킴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복식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에 대한 상상을 불러일으킴으로서 대담한 노출 이상으로 더욱 선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밀착을 통해 성을 자극하는 것은 가죽과 같은 소재를 활용하여 신체에 꼭 끼는 옷으로 재단하여 몸의 선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거나 동물의 껍질로서 사람의 피부를 직접 연상시켜 보다 에로틱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간접적 표현양식

인체부위 중 은폐의 부위로써 늘 인식되어 오던 치부의 간접적인 노출은 선정적임을 고려하여 복식에서도 사람들이 노출된 부분보다 가려진 부분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므로서 이성에게 더욱 성적인 자극을 준다는 논리에서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연상심리를 통해 성적매력을 느끼게 하는 상징적이고도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가볍고 고급스러울 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노출이 가능한 레이스는 여성적 섬세함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소재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간접적인 표현양식을 복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치는 소재(see-through)의 재질, 트임, 부분적인 노출 등을 활용하여 복식의 에로티시즘 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3. 상징적 표현양식

분석결과에 의하면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대상으로 여성의 발, 머리카락, 피부, 가슴 등의 신체 일부와 구두, 속옷, 코르셋 등의 의복항목을 복식의 에로티시즘 표현양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소재로는 모피를 사용하여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느끼게 하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고 실크를 사용하여 감촉이 좋고 비밀스럽고 개인적이며 나체를 연상시키는 재질로서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에로티시즘의 표현양식인 여성적 상징의 의미를 지닌 소재들을 복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에로틱한 신체의 곡선미를 나타내는 주름, 패드, 보정 속옷 등을 이용해서 여성적 곡선

을 인위적으로 표현하는 복식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에로티시즘은 성적 호소와 선정적 부위에 대하여 패션에 영향력을 주어 여성이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성적 욕구를 의복에 표현하는 복식미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복식에서 나타난 에로티시즘을 이해하는 것이 패션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말 복식사상은 장식성이 강해지고, 형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호화로운 분위기와 에로틱한 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다양한 현대의 패션 흐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의 하나로 새로운 인체미학인 에로티시즘의 표현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대의 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표현양식을 요약해 보면,

첫째, 직접적 표현양식은 보이고자 하는 욕구의 표출로서 가슴, 어깨, 다리, 목 등의 과대한 노출 및 슬리트(Slit), 커팅(Cuting), 슬래시(Slash)등으로 복식의 틈새로 노출을 하거나 가죽 등과 같은 소재를 이용한 밀착된 복식으로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밀착기법으로써 에로틱함을 표현하는 양식으로 복식에 활용되고 있다.

둘째, 간접적 표현양식은 연상심리를 통해 성적 매력을 표현하는 투시기법으로써 레이스, 비닐이나 시폰 등의 시스루(see-through)소재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이는 가려진 부분에 대한 상상으로 성적 매력을 나타내는 표현양식으로 복식에 활용되고 있다.

셋째, 상징적 표현양식은 여성의 성적인 상징이 되는 발, 머리, 가슴 등의 신체 일부나 구두, 속옷, 코르셋 등의 의복항목을 모피, 실크 등의 특별한 소재로 표현함으로써 성적 내면세계의 욕구를 표현하는 양식으로 복식에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의 복식에는 직접적, 간접적, 상징적 표현양식으로 에로티시즘을 성적 표현으로 귀결시켜 종래와 같은 도덕적인 비판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예술의욕에 의해서 표현된 복식의 아름다움으로 에로티시즘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복식 개발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